

조용에서 ‘연상’과 ‘추론’의 대위적 상관성*

김 경 석
(충북대학교)
김 서 영
(서울대학교)

Kim, Kyungsuk and Kim, Seoyoung. (2016). Contrapuntal correlation between association and inference in the associative anaphor. *Language Research*, 52.3, 369-392.

This paper aims to research into the contrapuntal correlation between association and inference in the associative anaphor. To this end, an analysis of collected data is made with the comparison of various types of anaphor which are coreferential, indirect, associative, or inferential. These last three concepts have somewhat similar properties but should not be confused: all indirect anaphora is not associative and the association does not derive the same mental process as the inference. A few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s proved that the concepts of 'indirect', 'inferential' and 'associative' do not show the same value in anaphora phenomenon by being applied to all collected French data. Second, it's found that the mental device of association operates in contrapuntal correlation with the mentation of inference in language act. Third, from the two above findings, we need to propose the distinction between 'canonical associative anaphora' and 'pseudo-associative inferential anaphora'. Therefore we would suggest the Doppler effects: (I) the device of association operates in direct proportion to language competence, culture, context, knowledge of world which are shared between interlocutors; (II) more prominent is the stereotype of words, bigger than the portion of inference is the one of association, whereas less prominent, more complicated is the former.

Keywords: association, inference, indirect, canonical associative anaphora, pseudo-associative (=inferential) anaphora, Doppler effects

* '대위'란 음악 용어로 음표와 음표, 멜로디와 반주가 동시에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멜로디만 때로는 반주만 진행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작곡 기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연상과 추론이라는 기제가 조화롭게 서로를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차용한다. 논문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3인에게 감사한다.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수정하였고, 아직도 남아 있을 문제는 순전히 연구자의 몫이다.

1. 들어가는 말

조용(anaphore)¹⁾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 혹은 서로 관련이 있는 언어 기호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성이나 표현의 다채로움을 추구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중 연상적(associative ou par association)이라는 수식어가 첨가되는 문법 기제는 출현 빈도가 높고, 담화 의미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조용 표현과 선행시를 간접적 혹은 추론적으로 연결하여 관여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어휘/담화 의미론과 화용론의 접면(surface de separation ; interface)인 동시에, 심리언어학 및 인지학, 인공지능, 전산정보학, 논리학 등이 교차하는 융합적 연구 대상이다.

- (1) Et comme le voyageur passait alors devant *l'église*, **les saints personnages** qui étaient peints sur **les vitraux** parurent avoir de l'éffroi. **Le prêtre** agenouillé devant **l'autel** oublia sa prière (Guillaume 1919:162)

(1)에서 굵게 밑줄쳐진 명사구가 이탤릭체의 지시 표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를 매개로 연관되는 해석을 산출하는 현상에 Guillaume (1919:163)은 ‘연상적(par association)’이란 수식어를 처음으로 사용한다.²⁾ ‘성인들이나 스테인드글라스, 사제’가 의미적 연상에 의해 선행한 ‘교회’와 해석상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Kleiber (1994, 2001)는 이를 어휘들 사이의 상투성(stéréotypie)³⁾에 입각하여 서로 독립적인 지시 표현들이, 대체로 후에 출현하는 요소에 붙여진 정관사의 ‘유일성(unicité)’ 혹은 ‘한정성(définitude)’을 통해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미적으로 포함되는 ‘전체-부분’의 관계로 정의한다.

이런 점에서 연상 조용은 관련된 언어 요소들이 대체되거나 공지시(coréférence)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연상시키는 정신 작용에 의해 지시물을 간접적으로 환기·명시한다는 점에서 ‘간접(indirecte) 조용’이라 불리기도 하고, 언어

-
- 1) ‘반복(reprise)’이나 ‘관계(rapport)’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어휘 ‘ἀναφορά’가 어원인 이 용어는 현대 언어학에서 ‘한 요소를 대체하는 문법 기제’를 통칭하며, 다양한 준거에 따라 ‘순행/역행’ 및 ‘동일 지시물/기의/기표’, ‘충실/불충실’, ‘상하위어/동의어’, ‘내적/외적’, ‘공지시/연상’ 조용으로 나뉜다(cf. 김경석(2014:24-30)).
- 2) Guillaume 이후 정관사의 특이 용법으로 간주된 채 묻혀있던 이 현상은 1960~70년대 들어 Blanche-Benveniste & Chervel (1966)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부상한다. 최근에는 어휘 의미적 관점의 Kleiber (1994, 2001, 2003)와 담화의미적으로 해결하려는 Charolles (1994, 1995, 1999), 화용적으로 접근하는 Erkü & Grudel (1987), Berrendonner (1994), Apothéloz (1995) 등에 의해 그 기술적 타당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3) Kleiber (2001:98)에 의하면, ‘X를 마을이라고 하고 이와 상반되는 정보가 없으면, X에는 교회가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상투성의 공리이다.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별개의 인지 능력인 '추론(*inférence*)'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추론 조용'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는 등 거의 등가의 개념처럼 혼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한편 '연상 ≠ 간접 ≠ 추론'이라고 논증함으로써 연상과 추론의 대위적 상관성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 제기에서 출발한다.

- (A) 조용에 있어서 '연상적'과 '간접적', '추론적'이라는 수식어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가?
- (B) 조용에 있어서 연상과 추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두 개념의 역할이 서로 구분되면서 대위적 상관성을 지닌다면, 외견상 유사하거나 동일해 보이는 현상에 대해 상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는 과정에서 세 용어의 유사함과 다름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안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개요와 방향을 제시한 들어가는 말에 이어, 2장에서는 공지시 조용과의 비교를 통해 연상 조용이 갖는 일반적 혹은 전형적 특성을 기술하는 한편, 지시 관계의 직접성과 간접성에 따라 연상 조용의 경계를 확정하며, 3장에서는 정의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연상과 추론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 두 요소의 대위적인 상관성을 입증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이 세 용어의 차등성에 입각하여 모든 연상 조용은 간접적인 동시에 추론적이나 모든 간접 조용이나 추론 조용이 연상적이라는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서 어휘의미의 상투성에 의거하는 유형을 '표준적 연상 조용(*anaphore associative canonique*)'으로, 상황이나 문맥에 의해 추론되는 구문은 어휘의미와 논리화용의 비중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연상에 준하는 추론 조용(*anaphore pseudo-associative inférentielle*)'으로 분리하면서 의미와 화용 사이의 접면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제안할 것이다.

2. 모든 간접 조용은 연상적인가?

Webber (1988:62)에 의거한, 다음의 예문과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지시 조용과 연상 조용은 작동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대명사로 대체되거나 '(불)충실 명사구'로 표현되면서 동일한 지시물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각기 다른 지시 표현이 정관사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기하고 명시한다.

- (2) C’était *une femme américaine fameuse de cette scène*.
 a. En 1963, Warhol a œuvré son visage
 b. En 1963, Warhol a œuvré le visage de cette actrice
- (3) a.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fermée
 b. ?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Une/cette/son église était fermée

(2)에서 ‘영화의 이 장면으로 유명해진 미국 여인(SN₁)’과 ‘앤디 워홀에 의해 얼굴이 예술로 승화된 여배우(SN₂)’는 동일한 지시물로 ‘Marilyn Monroe (E₁)’라는 실체(entité)를 가리킨다. 이러한 공지시 관계는 어휘가 지닌 의미 정보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직관적 문법 장치에 의해 산출되거나 해석된다. 직관적 문법 장치란 대명사가 명사구를 대체하고 지시사가 문맥 혹은 상황 속에 있는 지시 표현이나 지시물과 직접 연관된다는 정보 등이 담긴 언어 능력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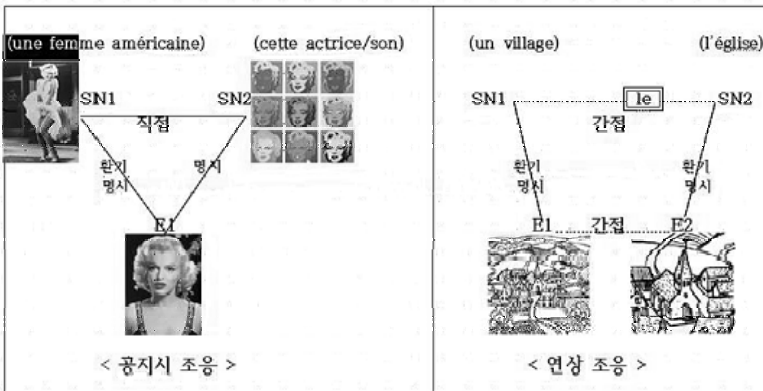


그림 1. 공지시 조응과 연상 조응.4)

그런데 (3b)에서처럼 부정관사나 지시사, 대명사는 수용되지 않는 반면, (3a)에서는 관련된 두 개의 요소들이 정관사를 통해 어휘 간 상투성에 기반하여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연상되고, ‘앞에서 언급된 마을에 위치한 교회’라는 간접적 관계라는 해석을 도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김경석 & 김서영(2014:588)과 김경석(2015:730)은 다음과 같이 기본 요건 및 형식 혹은 관계 조건/원리로 정리한다.

4) 김경석(2014:31-32).

- (4) a. 기본 요건: 새로운 지시 표현, 이 표현의 정관사, 다른 지시 표현, 추론을 통한 연상
 b. 형식 제약: 분의어 조건, 방향성 제약, 상투성 제약, 연상 유형에 따른 전이 제약
 c. 관계 조건/원리: 분리 조건, 존재 동질성 원리, 돌출성 원리

분의어 조건은 '명사구 X와 Y가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고 《Y가 X를 갖는다》 혹은 《X가 Y의 부분이다》라는 형식 문장(*phrase de la forme*)이 가능할 경우에만(*si et seulement si*), X는 Y의 분의어'라는 공리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3a)의 지시 표현인 'église'가 다른 지시 표현인 'un village'와 연상을 통해 'l'église de ce village'로 해석되는 이유는 '교회'가 어휘 간의 상투성에 따라 '마을'이라는 전체(*tout*)에 속하는 하위 부분(*sous-partie*)이기 때문이다. 방향성 제약과 전이 제약은 '언제나 전체에서 부분으로 연상이 진행'되고, '두 지시 표현 사이에 위치해야 하는 중간 단계의 요소가 출현하지 않거나 생략될 경우, 추론의 비약이 불가능하고 그 결과 문법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예측이다. '답화에 처음 출현하는 요소는 다른 요소와 동등하게 돌출되나, 한정 명사구가 되면 더 많이 돌출되고 선행어나 술어, 문맥 등의 정보에 의해 화제화되면 최대치의 돌출성을 갖게 된다'⁵⁾는 전제가 돌출성 원리이며, 분리 조건은 '조음사의 지시물은 연상자의 지시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야 함'⁶⁾을 의미하고, '두 지시물 사이의 분리성은 조음사의 지시물이 연상자의 지시물과 동일한 존재 유형일 경우에만 가능하다'⁷⁾는 존재 동질성 원리도 현상의 기술과 관련된 제약으로 정리된다.

2.1. 간접 조음의 문제

다른 한편으로 공지시 조음은 한 요소가 문맥이나 상황 속의 선행 표현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나, 연상 조음은 정관사의 매개를 통해 서로 다른 지시 표현이 연상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다. 이전 문맥에 들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지시물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지시물이 이전 문맥에 직접 언급되지 않고 공지시 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Erkü & Grudel (1987), Berrendonner (1994), Apothélos (1995) 등은 간접적으로 지시물을 환기하는 대명사 및 지시사 구문까지도 넓은 의미의 연상 조음에 포함시킨다.⁸⁾

5) Krahmer (1998:211).

6) Kleiber (2001:242).

7) Kleiber (2001:247).

8) 넓은 의미의 연상 조음은, 조음사가 앞선 문맥에 있는 연상자의 정보에 의해 확인되고, 그 지시적

- (5) a. Paul a acheté *une Toyota*, parce qu'elles sont robustes (Kleiber 1994a:151)
 b. Paul a été à *l'hôpital*. Ils l'ont soigné énergiquement (Kleiber 2001:49)
- (6) a. J'ai planté *un acacia*, parce que cet arbre ne craint pas le froid (Loc cit.)
 b. J'ai planté *un acacia*, parce que ces arbres ne craignent pas le froid (Loc cit.)

대명사나 지시사의 '공지시 혹은 대체'라는 일반적인 용례와 달리, (5-6)의 대명사나 지시사는 공지시를 이루지 않는다. (5a)에서는 'une Toyota ≠ elles'로서 특정한 자동차가 아닌 그 회사의 모든 차종을 총칭하며, (5b)의 'ils'은 'Paul이 병원에 있는 동안 치료에 관계했던 사람들'로 유추된다. (6)에서도 'cet arbre'나 'ces arbres'는 앞에 나온 'un acacia'라는 지시 표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속한 유형이나 전체'를 의미한다. 일반적 연상 조응에서는 정관사가 두 명사구를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반면에, 이 경우에서 대명사나 지시사는 선행 명사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휘의미적으로 연상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이거나 '공간', '가능', '사행의 일부', '출현 유형', '구성원' 등의 관계가 구성 요소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에 착안하여 Berrendonner (1994:223)는 다음의 '구성 성분 (ingrédience)' 조건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 (7) a. P가 Q와 동일한 대상이거나 그 부분이면, P는 Q의 구성 성분이다.
 b. P가 Q의 부분이면, Q는 P의 부분이 아니다.
 c. P가 Q의 부분이고 Q가 R의 부분이면, P는 R의 부분이다.

이 조건은 다음의 (8)과 같은 (불)충실 공지시 조응이나 (9)의 연상 조응뿐만 아니라,

- (8) a. Paul a adopté *un chat*. Le chat/il est très petit
 b. Paul a adopté *un chat*. L'animal est très petit

표현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지시가 아니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념이며, 대명사나 지시사에 의한 간접 조응도 포함한다(Kleiber (2001:8)).

- (9) a. Il s'abrita sous *un vieux tilleul*. **Le tronc** était tout craquelé (Kleiber 2001:14)⁹⁾
 b. Nous entrâmes dans *une cuisine*. **Le réfrigérateur** était ouvert (Ibid. 230)
 c. Je voudrais acheter *une maison*, mais je n'arrive pas à trouver **le propriétaire** (Ibid. 317)
 d. Paul *a été assassiné* hier. **Le meurtrier** court toujours (Loc cit.)

예문 (5, 6, 8, 9)에서 두 번째 출현한 요소가 선행사와 동일한 대상이거나 구성 요소, 관련된 표현이므로 대명사 및 지시사의 간접 조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준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소들이 연상 조용을 이룰 수 있다는 논거는 연상이라는 기본 개념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강력하여 현상을 과잉 제어한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2.2. 연상의 정의

우선 Saussure (1971:173-174)적 개념의 연상이란 ‘한 요소가 형태나 의미라는 다양한 준거에 따라 다른 요소를 환기하는 정신 작용’으로, 예를 들어 ‘enseignement’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준거에 따른 어휘 집합을 형성한다.

- (10) a. enseignement, enseigner, enseignants, enseignant, etc.
 b. enseignement, armement, changement, développement, etc.
 c. enseignement, instruction, apprentissage, éducation, etc.

형태적인 요소인 어간을 중심으로 파생될 수도 있고(10a), 어미에 따라 집합을 이루기도 하며(10b), 의미의 유사성을 근간으로 달리 분류될 수도 있다(10c). 따라서 언어 기호는 다양한 공통 분모를 축으로 기호들과 서로 다른 집합을 이룬다.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기호들은 ‘연상 및 교차, 인접, 등가, 포함, 내포, 유추, 속성, 대립’ 등과 같은 관계 준거에 따라 서로를 환기한다.

9) Kleiber (2001:266-267)는 현상을 관련되는 두 요소가 갖는 의미의 내적 관계에 따라, ‘분의(méronymique)’, ‘공간(locatif)’, ‘행위(actanciel)’, ‘기능(functionnel)’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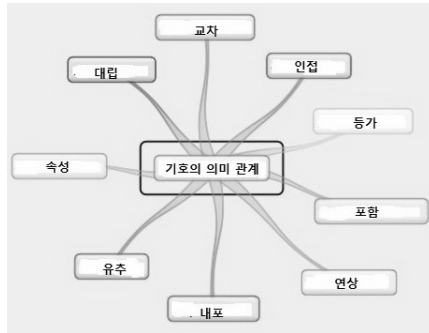


그림 2. 기호의 의미 관계.

이 중 연상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으로, 언어 기호의 심적 영상이 유사성(similarité)과 인접성(proximité)에 따라 다른 기호에 투영되어 새로운 심적 영상을 창출하게 하는 언어 능력이다. 이러한 연상 작용은 (10)과 같은 단순한 형태나 의미를 넘어 ‘상위어-하위어’ 및 ‘동의어-반의어’, ‘전체-부분’, ‘대상-재질/형태/자질/사건/시간’ 등과 같은 다양한 위상의 어휘 사이의 관계에까지 확장된다. 예를 들어 ‘Paris’와 같은 대도시와 ‘Soiron’이나 ‘Bonnieux’ 같은 작은 마을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나 어휘는 동일하지 않다.



그림 3. Soiron et Bonnie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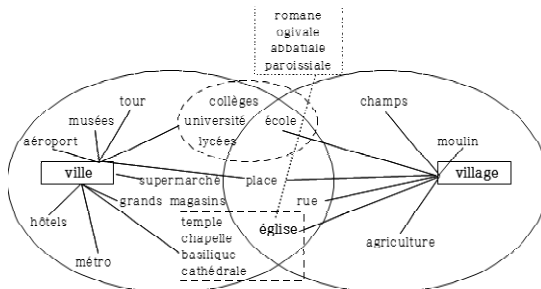


그림 4. ville과 village의 의미적 연상망.

그림 3, 4에서처럼 'village'는 '교회, 거리, 광장, 학교, 농사' 등을 포함하지만, '대형 매장, 슈퍼마켓, 박물관, 지하철, 공항, 대성당' 등을 연상시키지 않는다.¹⁰⁾ 따라서 'ville'과 'village'는 공통의 요소와 배타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며, 연상의 용이성에 따라 '전형적(typique)' 및 '상투적(stéréotypique)', '용인될 수 있는(tolérée)¹¹⁾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교회는 거의 모든 마을이 지니는 전형적 혹은 상투적 이미지이고, 도시에서도 용인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는 반면에, '대성당'은 도시의 대표적 상징물로 마을의 구성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 이처럼 연상은 하나의 대상 혹은 어휘소가 다른 요소들을 떠오르게 하는 어휘의미적 정신 작용으로 대상 어휘에 따라 집합이 달라진다. 관련 어휘들이 절 내부에서나 절과 절 사이에서 정관사의 매개라는 문법을 거쳐 상투적 연상 구조에 들어가면 일반적 유형의 연상 조용이 완성된다. 발화자나 수신자는 용인될 수 있는 연상보다 상투적이거나 전형적 특성을 지닌 어휘 관계를 보다 단순하게 그리고 자동적 혹은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명사나 지시사는 문법에 따라 작동하는 기제일 뿐 이러한 연상 작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들이 선행사와 맺는 상관성이, 비록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연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구성 성분 조건에 근거하여 공지시와 연상을 통합하여 기술할 경우, 연상 조용의 근거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강력하여 다음과 같은 예문이 보이는 비수용성을 바르게 예측하지 못한다.

- (11) a. ? *Max* entre. **Les yeux** sont hors de leurs orbites (Kleiber 2001:224)
 b. ? Paul est un fan de *Marilyn Monroe*. **La beauté/l'éclat** l'éblouit (Ibid. 230)
 c. ? *Cette machine* marche bien. **L'invention** a nécessité beaucoup d'effort (Ibid. 236)
 d. ? *Paul* entra. **Les paroles** réveillèrent toute l'assemblée (Ibid. 52)
 e. ? Il ramassa *une boîte*. **La matière** était inconnue (Ibid. 52)

(11a)의 'les yeux'는 'Max'의 신체 부위이며, (11b)의 'la beauté/l'éclat'는

10) 다른 기준에 따라 '교회'는 '고딕식의'이나 '로마네스크식의', '수도원에 딸린', '소교구의' 같은 부가어가 첨가되면 다른 어휘군을 형성하며, '대성당, 성당(basilique), 예배당(chapelle), 개신교 교회(temple)'처럼 대립적 개념의 새로운 집합체를 이룰 수도 있다. '학교' 역시 '중학교'나 '대학교' 등과 집합을 이룰 수 있다.

11) 특정한 기호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의 지시물과의 동일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나 대성당이 있는 마을도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모국어 화자의 어휘부에 이상적이거나 경험적 모형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Marylin Monroe’의 내적 속성에 해당하고, (11c)의 ‘l’invention’은 ‘cette machine’와 관련된 사건이며, (11d)의 ‘les paroles’은 ‘Paul’이 행하는 언술 행위이고, (11e)의 ‘la matière’ 역시 선행한 명사구 ‘une boîte’의 구성 성분으로 추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문들은 연상 조응을 이루지 못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구성 성분 조건이 문법성이나 수용성을 바르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화 준거가 되지 못한다. Kleiber (2001:53) 역시 지시물의 존재 동질성에 비추어 볼 때, 구성 성분 조건에 의거한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외견상 유사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속성을 지닌 다양한 현상들이 하나의 바구니에 담김으로써, 넓은 의미의 연상 조응 개념은 요소들의 존재 동질성이 무시된 작위적인 일반화라고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연상 조응은 정관사를 가진 한정 명사구만이 선행 명사구와 관계한다는 좁은 의미의 정의가 유효하다. 따라서 ‘공지시적’은 ‘직접적’이라는 개념과 필요충분분의 관계로 모든 공지시 조응은 직접적이고 역으로 모든 직접 조응도 공지시적인 반면, 연상 조응은 모두 간접적이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명사와 지시사는 직접 조응도 간접 조응도 이룰 수 있으나, 대명사와 지시사에 의한 간접 조응은, 연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상 조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연상과 추론 사이

연상 조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개념이 추론이다. 추론이란 ‘진리’로 확인된 단언이나, 발화, 명제와 같은 전제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끌어내는 사고 과정이다. Saussure적 개념으로는 ‘모든 언어가 체계’이고 이 체계 안에서 기호는 다른 기호에 대해 상대적인 값을 갖게 된다. 이 기호들이 언어 규칙에 따라 조합되어 발화나 명제를 이루고, 기호들 사이의 의미 양상과 문맥 정보에 따라 논리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추론은 수신자가 기호들이 지니는 단순한 의미의 합 이상을 끌어내는 인지 장치이고, 수신자는 언어 능력과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내적 혹은 외적 문맥까지도 활용한다. 김경석(2015:736)에 의하면, 몬드리안은 그림 5의 (a)와 같은 ‘나무’에서 단계를 거쳐 (e)라는 추상을 수신자에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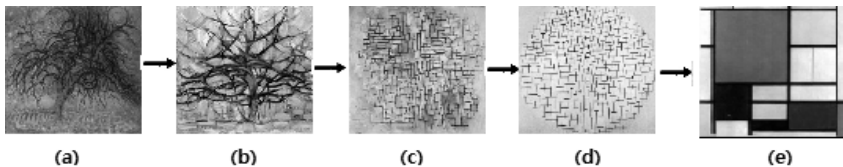


그림 5. 몬드리안의 추상화 과정.

추상의 결과를 접한 수신자는 논리를 역순으로 적용하여 '나무'라는 발신자의 의도를 해석한다. 이 과정에 필요한 정신 작용이 추론이라면 이는 연상과 개념상으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몬드리안이나 수신자는 (a)에서 (e)를 혹은 그와 반대로 (e)로부터 (a)를 단계적으로 추론한 것이지 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은 상투성에 의거하여 구성 요소인 '교회, 광장, 학교, 거리' 등을 추론이 아닌 어휘의미적 연상으로 도출한다. 따라서 연상이 어휘의미적 정신 작용이라면, 추론은 논리화용적 기제이다.

연상 조음에서 추론이 중요한 개념이 된 계기는 둘 이상의 잠재적 선행사가 존재할 때 이를 결정하려는 Clark (1977)의 '추론적 연결 고리(pontage inférentiel)'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조음 표현의 선행사를 결정하는 문제는 연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le plafond'의 선행사를 두고 어휘적 연상 관계에 있는 'la salle de bal'과 'la cuisine'가 경합하기 때문이다.

- (12) a. Je suis passé de la salle de bal dans *la cuisine*. **Le plafond** était très haut¹²⁾
 b. Je suis passé dans *la cuisine* en venant de la salle de bal. **Le plafond** était très haut
 c. Je suis passé de *la salle de bal* dans la cuisine. **Le plafond** était trop haut
 d. Je suis passé de *la salle de bal* dans la cuisine, parce que **le plafond** était très haut

가장 인접한 명사구가 선행사가 된다는 Clark (1977:415)의 예측은 더 멀리 있는 명사구가 선행사로 해석되는 (12b,c)에 의해 근거를 상실한다. 부사를 'très'에서 'trop'로 바꾸거나(12c) 두 절의 관계를 결과와 원인으로 구성하면(12d), 멀리 있는 명사구와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Clark는 가까운 명사구의 경우 두 번째 문장이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먼 명사구가 선택되면 '이유나 원인, 결과'에 해당할 것이라고 피해 가지만, 이 역시 Ariel (1990:189)의 다음과 같은 예문에 부딪친다.

12) Kleiber (2001:43-44).

- (13) a. Nous sommes allés au zoo avant de nous arrêter au Hilton pour boire un coup. **Le bébé orang-outang** était vraiment mignon
- b. ?? Nous nous sommes arrêtés au Hilton pour boire un coup avant d'aller au zoo. **Le bébé orang-outang** était vraiment mignon

(13a)의 동물원은 비록 멀리 있으나 화제이므로 문제의 동물과 연상 및 추론이 자연스럽지만, (13b)에서는 ‘새끼 오랑우탄’이 ‘동물원’과 연상 관계에 놓이나 힐튼이 화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발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수신자의 기대 값을 벗어나게 되어 수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상과 추론은 역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며, 복수의 잠재적 연상자 중에서 가장 적절한 실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상과 추론은 나름의 역할을 맡는다. 지시적 표현에 대한 적절한 실체의 해석이 조용에서 추론이 담당하는 역할이라면 추론은 모든 조용에 관여한다. 다시 말해, 공지시 조용과 간접 조용, 연상 조용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추론은 적절한 해석을 위해 작동한다.

첫째, 대명사나 지시사처럼 앞선 문맥 속의 지시물을 대체하거나 언어 외적 현실에 있는 대상을 직시하는 공지시의 경우에서도 조용 요소와 잠재적 선행사는 문법적 일치 관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Prince (1981)나 Ariel (1990)은 담화 상에 이미 주어진 실체는, 해석이나 이해를 위해 복원하거나 암시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론이라는 값비싼 기제를 동원하지 않으며, Clark (1977:414) 역시 정관사에 의한 충실 조용이나 대명사 조용과 같은 공지시 관계에서는 문맥이 지시물의 확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한다.

- (14) a. Paul a adopté *un chien*, il y a un mois. **Le chien** lui sert aujourd'hui de partenaire à la belote (Kleiber 2001:41)
- b. *Paul* est parti. **Il** a oublié de manger **sa** choucroute (Loc cit.)
- c. Une femme est venue voir *Alain Delon*. **L'homme/il** portait un chapeau
- d. *Un homme* est venu voir Alain Delon. **L'homme/il** portait un chapeau (Loc cit.)

(14a)에서 ‘le chien’의 선행사는 ‘un chien’이고 (14b)의 ‘il/son’이 ‘Paul’이

된다는 해석은 정관사나 대명사, 지시사의 문법 자질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14c)의 'l'homme/il'도 가까이 있는 'Alain Delon'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14d)에서는 멀리 있는 'un homme'와 공지시된다고 적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론 법칙'이나 접근성(accessibilité)¹³⁾, 돌출성, 관여성(pertinence)과 같은 원리가 필요하게 된다.¹⁴⁾ (14a-b)에서는 'le chien'이나 'il'에 대한 잠재적 선행사가 하나 뿐이므로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지 않으나, (14d)에서처럼 잠재적 요소가 복수일 경우는 보다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대명사나 지시사가 간접 조용을 이룰 때에는 전자의 경우보다 추론의 비중이 보다 커지게 된다. Kleiber (1994)에 의하면, '선행사를 갖지 않은 대명사(pronoms sans antecedent)'에는 '상황적 il'과 '총칭적 ils', '집합적 ils'이 포함된다.

- (15) a. «Où est-il (=ton papa)», dit cette femme à ses enfants
(Kleiber 2001:49)
b. Paul a acheté une Toyota, parce qu'elles sont robustes
(Kleiber 1994:151)
c. Paul a été à l'hôpital. Ils l'ont soigné énergiquement (Kleiber 2001:49)

(15a)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리라 여졌던 아이들의 엄마가 남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적 대명사를, (15b)는 '토요타 자동차 전체'를 의미하는 총칭적 용법의 대명사를, (15c)는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한 의료인들'을 통칭하는 대명사를 가진 발화이다. 이들 모두는 공지시 되지도 연상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연산 과정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지시사 역시 간접적일 때 그 연산이 단순하지 않다.

13) Ariel (199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 명사구는 지시물에 대해 접근성의 정도 차이가 보인다. 뒤로 갈수록 지시물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진다(Full name > long definite description > short definite description > last name > first name > distal demonstrative > proximate demonstrative > NP > stressed pronoun > unstressed pronoun > cliticized pronoun > zero). 지시물에 대한 해석 접근성은 정보(informativity)가 많을수록, 지시물에 대한 선택의 폭(rigidity)이 적을수록, 음운적으로 압축(phonological size)될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14) Ariel (1990)의 '접근성 이론', Gundel, Hedberg & Zacharski (1993)의 '주어집성의 위계(Hiérarchie du donné) 이론', Walker, Joshi & Prince (1998) 중심성(Centrage) 이론', Lewis (1979)의 '돌출성 이론', Clark (1977)의 '최단 연결 고리(Pontage le plus court) 이론' Sperber & Wilson (1986)의 '최적 관여성 원리(Principe de pertinence optimal)' 역시 이러한 문제를 화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다.

(16) a. *Ce train* a toujours du retard (Kleiber 2001:33)

b. J'ai planté *un acacia*, parce que cet arbre / ces arbres ne craint / craignent pas le froid (Loc cit.)

(16a)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옆 사람에게 투덜거리는 상황’이며, (16b)에서는 언급된 아카시아 나무가 아닌 ‘아카시아 나무의 유형’이나 ‘나무 전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용에서는 지시 표지와 지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이 합치하지 않는다.

셋째, 추론은 단 하나의 잠재적 선행사만이 존재하는 일반적 연상 구조에서도 작동한다. 두 요소는 이미 어휘부 내에서 연상이 이루어지는 어휘 집합으로, ‘다른 마을이 아니라 방금 언급되었던 마을에 위치한 교회’라는 해석은 ‘가장 전형적 연상’이자 ‘비교적 단순한 추론’에 해당한다. 연상이 공지시와 다른 점은 새로운 지시물이 정관사와 함께 출현하기 때문에 수신자는 새로운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지시물을 문맥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다. 연상 조용의 목적이 ‘이미 존재하는 담화적 지시물을 통해 잠재적 담화 지시물을 추론¹⁵⁾하는 것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문장은 지시물을 잇는 직접적인 통로가 아니라 ‘연상 절차에 따라 지시물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일 뿐’¹⁶⁾이다. Prince (1981:236)에 의하면, ‘수신자가 논리적 사유 혹은 이성적 판단을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발화자가 추정할 수 있는 지시물’, 다시 말해서 추론할 수 있거나 추론된 실체는 언어 표현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정신적 표상이다. 따라서 모든 조용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추론이 관여하고, 연상 조용에서는 환기되지 않은 실체를 문맥에서 찾아내기 위해 수신자가 보다 복잡하게 연산한다. 새로운 정보인 동시에 정관사로 표지된 구정보에 해당하는 조용 표현은 접근 가능해야 하고, 수신자가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발화자는 접근가능한 지시 표현을 제시한다. Ariel (1990)에 의하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고유 명사는 바로 실체와 연관되고, 접근성 높은 대명사나 지시사는 문법 표지에 따라 해석된다. 주어집성¹⁷⁾의 정도에서 ‘유일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관사는 중간 정도의 접근성을 지니기 때문에 추론에 의해 선행사가 결정한다. (17b)에서처럼 대명사나 지시사를 사용하면 접근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용성에 변화가 발생한다.

15) Cornish (1986:133) : «une inférence à un référent discursif latent via un référent discursive existant».

16) Charolles (1999:313) : «it only provides a signpost leading to it following an inferential procedure».

17) Schwarzschild (1999)는 이 용어를 ‘새로운 정보가 아니면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 (17) a.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b.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 Cette'église / * ell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다음의 예문 (18a)에서도 접근성이 높은 요소인 대명사가 설사 추론될 수 있더라도 연상 조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낮은 실체를 가리키지 못한다.

- (18) a. Harry *roulait* vers Londres. * Elle tomba en panne à mi-chemin (Kleiber 2001:48)
 b. Harry *roulait* vers Londres. La voiture tomba en panne à mi-chemin (Loc cit.)

부정 관사 역시 한정성을 전제로 하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용법에서만 허용된다.

- (19) a.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e roue était pleine de boue (Kleiber 2001:16)
 b.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Les roues étaient pleines de boue (Loc. cit.)
 c. Les policiers inspectèrent *la voiture*. Une des roues était pleine de boue (Loc. cit.)

(19a)의 부정관사는 비한정적 용법이 아닌 '언급된 자동차의 네 바퀴 중 하나'라는 (19b-c)와 같은 추론 과정을 거쳐 정관사와 동일한 한정적 해석을 받는다. Kleiber (2001:21-22)는 부정관사를 가진 조용사는 복수인 'les N'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단수인 'le N'만이 존재하면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한다.¹⁸⁾ 뿐만 아니라 연상 관계가 어휘부의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수량이 이에 반하면 적절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18) 그런데 정관사에 의한 연상 조용을 허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 명사가 (18)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부정 관사 조용을 이루는 경우도 관찰된다. «*Il (=Julien Sorel) avait les joues pourpres et les yeux baissés. (...) De grands yeux noirs (=ses grands yeux noirs), (...) étaient animés en cet instant de l'expression de la haine la plus féroce. Des cheveux châtain foncé (=ses cheveux châtain foncé), (...), lui donnaient un petit front, et, dans les moments de colère, un air méchant.*» (Stendhal, *Le rouge et le noir*, 233)

- (20) a.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 **Les églises** étaient situées sur une hauteur
 b. *Un bus* s'arrêta. **Les passagers** descendirent / * **Le passager** descendit (Ibid. 117)

(20a)에서 마을에 다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상투성에 맞지 않고, 이와 반대로 (20b)에서 ‘버스에 단 한 명의 승객만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단수 명사구는 문법을 어긴다.

넷째, ‘전이 불가능성(non-transitivité)’도 연상과 추론 사이의 대위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해석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생략되거나 행간에 숨어있는 경우, 문법성이 매우 나빠진다.

- (21) a. * Nous arrivâmes dans *le village*. (**L'église** était ouverte.)
L'autel était recouvert de fleurs (Kleiber 2001:203)
 b. * Nous nous approchâmes d'*une maison*. (**La porte** était fermée.)
La poignée était rouillée (Loc. cit.)

이 예문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마을과 제단’ 사이에 ‘교회’가, ‘집과 손잡이’ 사이에 ‘문’이 출현하지 않아 연상 과정을 정당화하는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제단이나 문의 손잡이’라고 추론될 수 있더라도, 두 문장 사이에 있는 괄호 속 문장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중간 단계를 갖지 못한 새로운 지시 표현은 선행 정보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아 ‘돌출성’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다섯째, 어휘들 간의 상투적 연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문맥에 따라 자연스러운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 (22) a. *Sophie dormait*. **L'avion** survolait l'océan Indien (Charolles 1994:70)
 b. En 1930, **les voitures** roulaient moins vite (Loc.cit.)

(22a)의 ‘l'avion’과 ‘Sophie dormait’는 어휘부에 수록된 정보와 무관하고, (22b)의 ‘les voitures’가 1930년대를 대표하는 상투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상이 아니라 추론에 의해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문맥만이 지탱해주는 명사구들은 정관사가 매개한다는 문법 현상만 동일할 뿐 담화의 관여성을 위한 추론에 의해 도출된다는

것이다. Charolles (1994:79)은 상투성을 근거로 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문맥을 적절히 가다듬고 확장하면 문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예문들을 다듬어낸다.

- (23) a. ?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 b. Nous nous étions inscrits à un circuit “Connaissance de la Bourgogne romane.” La région était littéralement couverte de petits édifices dont certains remontaient au X^e siècle. Nous partîmes de bon matin car le programme était chargé. Nous arrivâmes dans *un village*. L'église romane était située sur une hauteur. (…)

‘시나리오-구성요소(scénario-composant)’, 다시 말해서 잘 다듬어진 담화 문맥이 동일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Charolles (1994:70)은 상투적이라는 개념이 1~2문장으로 지나치게 압축된 엄정 문맥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23b)처럼 문맥을 적절히 확장할 경우 문법이 허용하는 담화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듬어짐’은 작위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현상에 대한 일반적 원리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논거가 타당하다면, 연상과 추론은 등가의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오히려 대위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정신 기제이다.



그림 6. Bach의 *Fugue No 17, A-flat 장조 BWV 852*.

그림 6의 악보에서 알 수 있듯이, 대위법에 기반한 작품에서는 음표와 음표, 멜로디와 반주가 동시에 어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멜로디만 때로는 반주만 진행되면서 조화를 이룬다. 연상과 추론도 이처럼 작용하여, 전형적 혹은 상투적 연상에는 기계적·자동적 단순 추론이, 용인되기 어려운 연상일수록 보다 복잡한 추론이 작동하며, 연상은

되지만 추론이 어렵거나 반대로 연상되지 않으면서 추론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어휘의미의 상투성에 의거하는 일반적 유형과 문맥에 좌우되는 유형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자의 경우를 ‘(표준적) 연상 조용(anaphore associative canonique)’이라 하면, 후자는 연상이 아니라 추론에 의한 ‘준 연상적 추론 조용(anaphore pseudo-associative inférentielle)’으로 구분해야 한다.

4. 의미와 화용의 경계

어휘부와 통사부가 경계를 이루듯이, 의미부 및 담화부, 화용부 역시 접면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의미론은 의미의 진리 조건에 관한 양상과 의미의 관습적 실체를 다루며, 화용론은 비조건 진리에 관한 것과 언어 외의 체계에서 생기는 자연적 반향에 관심을 갖는다. 다음의 그림 7에서처럼, 어휘부에 축적된 고유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언어 능력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발화자에 의해 선택되고 통사 규칙에 따라 구조화된 후 문맥과 상황, 의도에 따라 새로운 의미로 태어난다. 어휘소는 문법이나 형태, 어원, 다른 요소와의 관계, 어휘 자질 등에 따라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 발화자는 전체인 ‘마을’에서 부분인 ‘교회’를 연상하여 ‘하위범주화’와 같은 통사 규칙이나 ‘선택 제약’과 같은 의미적 조건에 따라 통사부에 입력하고, 담화의 일관성이나 관여성과 같은 화용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문맥 관련 정보에 따라 구조를 완결하면,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추론된 후 최종적인 의미가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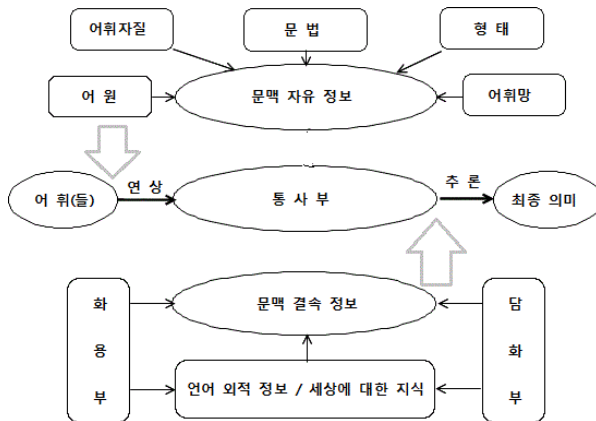


그림 7. 최종 의미의 생성 과정.

따라서 연상은 통사부 초입에 반영되는 연역적·경험적 과정이며 추론은 통사부 말미에 적용되는 귀납적·인지적 과정이다. Grice (1975:45-46)의 원칙들(maximes)로 이루어진 '협력의 원리(Principe de cooperation)'에 의하면, 발화자나 수신자는 정상적인 소통을 위해 서로 협력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이 언급되면 그 마을과 관련이 있는 대상이나 사건, 행위 등으로 담화가 진행된다. 대화 과정에서 발화자가 부적절한 발화를 할 경우 수신자는 이를 발화자의 실수나 오류로 간주하지 않고, 다른 의도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 (24) A: S'il vous plaît, je n'ai plus d'essence dans ma voiture
 B: Ma maison est tout près d'ici

두 사람이 대화를 협력적으로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B)는 자신의 집에 여분의 휘발유가 있어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대화자들은 협력의 원리에 따라 어휘 의미의 합 이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화용적 도구인 대화적 함축을 활용한다. 이렇듯 발화나 대화는 다양한 지식과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고 압축적인 한편 관여적이고 경제적인 기제들을 동원하여 연상하고 추론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상과 추론은 대위적으로 서로를 보완하여 발화의 이해와 해석을 돕는다.

하지만 연상과 추론이 가능한 발화라도 문법과 합치되거나 세상 지식의 측면에서 진리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신체 부위나 관련 명사구의 연상 조용은 문장 사이(inter-proposition)에서는 불가능하고 문장 내(intra-proposition)에서는 가능하지만, 문법성이나 수용성은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5) a. She put her hand on his knee / * She put him **the hand** on **the knee**
 b. Sie legte ihm **die Hand** aufs **Knie** / ? Sie legte ihm ihre Hand auf sein Knie
 c. Elle lui a pose **la main** sur **le genou** / ? Elle lui a pose sa main sur son genou
 (26) a. She took her hat off / ?? She took **the hat** off
 b. Sie nahm **den Hut** ab / Sie nahm ihren Hut ab
 c. Elle s'est ôté **le chapeau** / ? Elle s'est ôté son chapeau

Löbner (2003:8)에 의하면, 문장 내 조용의 경우 프랑스어와 독일어에서는 완전한

발화가 영어에서는 (25a)와 같이 비문법적이거나 (26b)처럼 수용성이 낮아진다. 연상과 추론이 대위적으로 작동하지만 문법이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연상과 추론의 조건은 충족시키나 세상 지식에 어긋날 수도 있다.

(27) a. # *Jean aime la Corée. La capitale se trouve au bord de la mer*

b. # *Je suis arrivé dans un village. Le temple est fermé*

(27a)의 ‘la Corée’와 ‘la capitale’은 연상 조응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수도는 바닷가에 있다’고 연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참이나 거짓’에 대한 추론은 논외이다. (27b)도 마을마다 절을 가진 태국인에게는 문법적이나 서양의 시각으로는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¹⁹⁾ 이처럼 세상에 대한 지식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수용성이나 문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이라는 명제 혹은 해석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문장의 잠재적 전제는 문맥에서의 실제적 전제와 구별되며, 발화 당시에 가정된 배경 정보와 양립할 수 없는 잠재적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원리가 필요하다. 동일한 언어공동체나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담화 혹은 상황 문맥을 적절한 수준에서 공유하고 있어야 발화의 산출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와, 연상과 추론 사이의 역할 분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도플러 효과(Effet Doppler)’²⁰⁾를 제안한다.

(28) 도플러 효과

- I. 연상 효과는 발화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언어 및 문화, 상황, 문맥, 지식 등에 정비례한다.²¹⁾
- II. 어휘 간의 상투성이 두드러질수록 연상은 쉽게 일어나고 추론의 비중은 낮아지나, 상투성이 없거나 낮을 경우 연상은 어려워지고 추론의 연산 과정은 복잡해진다.

19) 문법성이나 수용성, 해석성(interprétabilité)을 위반한 발화에 대하여 각각 ‘*’, ‘?’, ‘#’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이 이에 해당한다.

(i) * *Moi aimer nouilles* (Maingueneau 1996:24-25)

(ii) # *L'ombre boit le chauffe-eau*

(iii) ? *A qui dis-tu que Paul a voulu que le projet auquel Jean pense parfois la nuit qu'il est attaché soit vendu ?*

20) 물리학에서 도플러 효과는 다가오는 물체와 멀어지는 물체는 같은 속도일지라도 관측자에게 다른 값으로 산출된다는 것이다(<http://www.wikipedia.org>). 연상 조응에서의 효과도 이와 유사하여 용어를 차용한다.

21) 김경석 & 김서영(2014:592).

동일한 언어 및 문화 환경에 노출된 구성원이라도 교육 정도나 공유된 상황, 문맥, 세상에 대한 지식 등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출과 해석의 값이 높아지고 그 역도 성립한다. 또한 연상이 전형적이거나 상투적이면 추론이 최소가 되고, 용인되기 어려운 연상일수록 추론의 연산 과정은 복잡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 효과를 적용하면, (27)과 같이 기본 요건을 갖추고 형식 제약과 관계 조건을 어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혹은 화용적 오류를 범한 발화를 설명할 수 있다. 문법성은 '하위범주화'와 같은 형식적·통사적 제약을 따르고, 수용성은 '선택 제약'과 같은 어휘의미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 반면, 해석성에는 '관여성'과 같은 화용적 제약이 관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연상은 추론과, '연상적'은 '간접적'이라는 개념과 완전히 등가의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 연상되면 추론되나 역은 성립하지 않으며, 연상적이면 간접적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언제나 성립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상되고 추론될 수 있어도 문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상 및 추론, 문법에 문제가 없어도 세상 지식에 의해 배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용되던 연상 조용의 범주를 세분하여 기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28)

	연상	추론	문법	세상 지식	예
(표준적) 연상 조용	+	+	+	+	(1), (3a), (9), (12), (19)
(준 연상적) 추론 조용	-	+	+	+	(22), (23b)
전이 구문	-	±	-	+	(21)
공지시 조용	-	+	+	+	(2), (8), (14ab)
대명사/지시사 간접 조용	-	+	+	+	(5), (6), (15), (16)
비문법(*)/비수용(?) 구문	+	+	-	+	(11), (20), (23a), (25a), (26a)
비해석(#) 구문	+	+	+	-	(27)

5. 논의를 마감하며

“조용에 있어서 ‘연상적’과 ‘간접적’, ‘추론적’이라는 수식어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가?”와 “조용에 있어서 연상과 추론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두 역할이 서로 구분되면서 대위적 상관성을 지닌다면, 외견상 유사하거나 동일해 보이는 현상에 대해 상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던진 서두의 질문에 대해, 연상 조용은 외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여도 간접 조용이나 추론 조용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개념이 아니며, 상이한 정신 작용들인 추론과 연상은 대위적 상관성 하에서 서로를 보완한다는 근거

를 찾아 보았다.

대명사나 지시사가 이루는 간접 조응은 연상이라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구성 성분 조건에 근거하여 공지시와 연상을 통합하면 지나치게 강력하게 현상을 제어하게 된다는 점에 의거하여 연상과 간접의 개념을 분리하였다. 연상과 추론에서도, 전형적 혹은 상투적 연상은 기계적·자동적 추론을, 용인 정도가 약한 연상은 복잡한 연산을 요하는 추론을 요구하며, 연상은 되지만 추론이 어렵거나, 연상 관계는 없지만 추론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상과 추론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 연상 조응’과 ‘준 연상적 추론 조응’을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상과 추론이 가능한 발화라도 반드시 문법과 합치되거나 세상 지식의 측면에서 진리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상 효과는 발화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언어 및 문화, 상황, 문맥, 지식 등에 정비례하며, 어휘 간의 상투성이 두드러질수록 연상은 쉽게 일어나고 추론의 비중은 낮아지나, 상투성이 없거나 낮을 경우 연상은 어려워지고 추론의 연산 과정은 복잡해 진다는 도플러 효과를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경석. (2014). ‘공지시 조응과 연상 조응’, 『인문학지』, 49집, 23-41.
- 김경석. (2015). ‘국어와 프랑스의 연상 조응’, 『어학연구』, 51권 3호, 727-745.
- 김경석 & 김서영. (2014). ‘프랑스어 연상 조응에 대하여’, 『어학연구』, 50권 3호, 577-600.
- 김서영. (2014). ‘프랑스어의 연상 대응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Apothéloz D. (1995). *Rôle et fonctionnement de l'anaphore dans la dynamique textuelle*, Genève : Droz.
- Ariel M. (1990). *Accessing noun-phrase antecedents*, London: Routledge.
- Azoulay A. (1978). ‘Article défini et relations anaphoriques en français’, *Recherches linguistiques françaises* 7, 5-46.
- Berrendonner A. (1994). ‘Anaphore associative et méréologie’,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81-98.
- Blanche-Benveniste C. and Chervel A. (1966). ‘Recherches sur le syntagme substantive’, *Cahier de lexicologie* IX 2, 3-33.
- Charolles M. (1994). ‘Anaphore associative, stéréotype et discours’,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 XIX, Paris, Klincksieck, 67-92.
- Charolles M. (1995). 'Cohésion, coherence et pertinence du discours', *Travaux de linguistique* 29, 125-151.
- Charolles M. (1999). 'Associative anaphora and its interpretation', *Journal of pragmatics* 31-3, 311-326.
- Clark H. H. (1977). 'Bridging', dans P. N. Johnson & P. G. Wasow (éds), *Thinking : readings in cognitive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1-420.
- Cornish F. (1986). *Anaphoric relations in English and French*, London: Groom Helm.
- Erkü F. and Grundel J. K. (1987). 'Indirect anaphore', dans J. Verschueren et M. Bertucelli-Papi (éds), *The pragmatic perspective*, John Benhamin, 533-545.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dans P. Cole, J. Morgan (é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Guillaume G. (1919). *Le problème de l'article*, Paris : Hachette.
- Gundel J., Hedberg N., and Zacharski R. (1988). 'Givenness, implicature and demonstrative expressions in English discourse', *Proceedings of 25th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rt II (Parasession on language in context), 89-103.
- Kleiber G. (1994). 'Anaphore associative, antécédent et définitude', dans C. Schnedecker, M. Charolles, G. Kleiber, J. David (éds), *L'anaphore associative (Aspects linguistiques, psycholinguistiques et automatiques)*, *Recherches linguistiques XIX*, Paris, Klincksieck, 153-173.
- Kleiber G. (2001). *L'anaphore associative*, Paris : PUF.
- Kleiber G. (2003). 'Un «puzzle» référentiel en anaphore associative', dans F. I. Fonseca & A. M. Brito (éds), *Lingua portuguesa: estruturas, usos e contrastes*, Porto: Centro linguistica da universidade do Porto, 97-110.
- Krahmer E. (1998). *Presupposition and anaphora*, Standard: CSLI publication.
- Lewis D. (1979).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Journal of philosophical language* 8, 339-359.
- Löbner S. (2003). 'Definite associative anaphora', *Seminar für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 Heinrich-Heine-Universität, 1-22.
- Maignueneau D. (1996). *Syntaxe du français*, Paris : Hachette.
- Miéville, D. (1999). 'Associative anaphora: an attempt at formalisation', *Journal of pragmatics* 31.3, 327-337.
- Prince E. F.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dans P. Cole (éds),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223-255.
- Saussure F. (1983).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 Payot.
- Schwarzschild, R. (1999). 'Givenness, avoid F and other constraints on the placement of accent', *Natural language semantics* 7.2, 141-177.

- Sperber D. and Wilson D. (1989). *La pertinence : communication et cognition*, Paris : Les Editions de Minuit.
- Walker M. A., Josh A., and Prince E. F. (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Oxford university press.
- Webber B. L. (1988). 'Tense as discourse anaph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14, Issue 2, 61-73.
- Stendhal. (2005). *Le rouge et le noir*, dans *Œuvres romanesques complètes Tome 1*, Paris :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 <http://www.wikipedia>.

김경석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 kskim@cbnu.ac.kr

김서영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불어전공 박사과정

전자우편 : seoyoung.kim@hotmail.com

접수일자 : 2016. 10. 26

수정본 접수 : 2016. 11. 19

게재결정 : 2016. 11. 29